

1930년 4월 1일 4면2단

## 懷疑主義 批判(十五)

-思想和 生活의 方法論-

裴相河

矛盾만으로 가득 찬 權威! 非合理를 팔아서 不平만을 사는 넛날 權威! 한 개의 客觀的 存在인 權威는 여러 개의 主觀的 存在인 우리들을 거의 不可抗의 힘으로 支配하고 있다. 이것은 矛盾이다. 矛盾은 苦痛을 나으니 支配받는 무리들의 아랫 배에는 미움과 怨恨만이 가득 차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아모리 不平을 呼訴하여 보았든들 두 개 맞게 얽는 팔을 아모리 쏘내여 보았든들 이것만으로써는 不平의 呼訴와 虛勢의 誇示만으로써는 힘 만흔 權威를 破壞하기엔 너무나 힘弱하지 안할 수 없다.

矛盾에 넘치는 넛날 權威는 나날이 吾人의 生活을 어둡게 한다. 그것에게 눌리어 잇는 무리...

.....(이하 원문해독불가).....

흐면 아니 되는 무리들은 다시금 눌리움에서 이러나며 그릇된 支配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正當한 事實이며 自然이다. 그러나 왜? 그네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러나지 못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러나랴 잇스며 벗어나지 못하게 될려면 果然 『어찌케 하여야 할 것이가?』 그릇된 支配 矛盾의 權威를 破壞할려면 吾人은 어찌한 方法과 態度를 取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을 破壞한려 하드래도 破壞한 뒤에 또 어찌케 하여야 할 것인가?.....以上 二三의 問題를 解決한다면 本論의 任務는 다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問題의 解答으로써 吾人은 同志들에게 勸告하자 하는 바이다. 以上에서 말한 바와 가티 主觀인 吾人은 能히 懷疑의 對象 될 수 잇슴을 懷疑 할 수 잇다 함은 事實이며 SEIN이며 懷疑의 對象 될 수 잇는 客觀的 存在인 權威이면 맞당히 懷疑를 입어야 할 것이 또한 事實이며 SEIN이니 吾人은 이 事實을 事實대로 이 SEIN을 SEIN대로 두지 말고 한겨름 더 나아가 그것을 그러케하기 爲하여 그 먼침 徹底히 疑心하지 안흐면 아니 되겟다. 疑心하여야만 되겟다는 『不可不』에 까지 高調하자는 말이다.

그러면 懷疑의 對象 될 수 잇는 破壞를 當하지 안흐면 아니 될 權威는 무

엇일까?.....ㅍㅍ人은 여의 對한 論述을 □하러 한다. ㅍㅍ人의 論文을 外國文이라 하지 안흔 사람이면 다시 말하면 不平과 怨恨이 가슴 집피 사모친 무리이면은 서로 말하지 안코 通하지 안트래도 그 놈의 權威가 무엇이며 그 놈의 □□이 무엇인지를 스사로히 깨다러 잇슬 수 잇는 싸답이다.

建設에는 破壞를 前提하고 破壞는 懷疑를 前提하며 懷疑는 權威를 前提하지 안흐면 아니 된다. ㅍㅍ人이 公公하는 바 權威는 □□스런 前提일 것 가트되 實相 가장 普遍性 만흔 客觀的 事實이다. 그럼으로 넷날 權威세 새로운 權威를 創造하며 非 合理的인 □□서 버서나 合理的인 生活을 建設하기 爲하야 ㅍㅍ人은 그것을 밋으라고 說教하기 前에 그것을 疑心하라고 勸告하러 한다. 徹底한 疑心서야만 긋센 밋음이 생기는 싸답이다. 그것에게 服從하라는 □□를 强要하기 前에 合理的 反抗을 許認 할 □□를 要求하자 한다. □□와 權利는 □□인 싸답이다.